

사회

‘광주판 조두순 사건’ 충격

보호관찰 20대, 여중생 엮기 성폭행·상해

한달 새 10대 소녀 8명 피해...절도도 14건

여중생을 성폭행하기 위해 흥기를 휘두르고 엮기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에 상해까지 입힌 20대 상습 성폭행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범인은 최근 한 달간 13~18세 여학생을 무려 8명이나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달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범인은 보호관찰 대상이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광주 시내 한복판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수시로 ‘뽕슬짓’을 일삼았다.

광주동부경찰은 24일 학원에 가던 여중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흥기로 다리를 찌르고 달아난 조모(21)씨에 대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가 검거된 후 하루동안 4명의 여중생이 피해신고를 해 와 수사는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20분경 광주시 동구 산수동 산수지구대 인근 골목에서 A(14)양

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들고 있던 흥기로 A양의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르고 흥기 손잡이를 국부에 집어넣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성추행 등 전과 16범인 조씨는 A양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채 자신의 점퍼 안 주머니에 있던 길이 26cm의 흥기를 꺼내보이며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대로변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골목길로 데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조씨는 골목길에서 A양의 반향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A양을 200m 가량 떨어진 인근 원룸 주차장까지 업고 가 재차 성폭행을 시도하던중 인격적이 나자 그대로 달아났다. 조씨는 1차 성폭행 시도 후 자신의 상의를 찢어 김양의 허벅지를 묶어 가린 뒤 성폭행 장소를 옮기는 데 범함을 보였다.

또 장소를 옮긴 뒤에는 A양의 국부에 흥기 목재 손잡이로 상해를 입히

는 엮기 행각을 벌였다. A양은 조씨가 주변의 인기적으로 달아나자 200m 떨어진 지극대에 피를 흘리며 걸어가 신고했다.

조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찢어진 상의를 입은 채 산수동 모 주유소 주변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일에도 산수동의 한 골목에서 B(13)양을 비슷한 방법으로 끌고다니다가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시내 한복판에서 ‘보란듯이’ 범죄를 저질렀다.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조씨는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광주에 사는 큰아버지집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성범죄 외에도 최근 한 달새 14건의 절도사건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보름 쥐불놀이

정월대보름(28일)을 나흘 앞둔 24일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 주민들이 액운을 쫓고 풍년을 소망하는 쥐불놀이를 하고 있다. /함평=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매일 3천원씩 200차례 뜯겼다”

광주 광산경찰, 동급생 갈취·폭행 중학생 7명 검거

가해 학생 “나도 상남”

광주 모 중학교에서 8개월간 정기적으로 동급생들에게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온 10대 7명이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24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들을 때리고 돈을 갈취한 광주 모 중학교 김모(13)군 등 7명을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군 등은 폭행과 횡포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 A(13)군 등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A군은 그동안 김군

등의 협박이 두려워 담임 교사는 물론, 부모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 교실과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 A군 등 9명으로부터 매일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군 등은 A군으로부터 매일 3천원씩을 정기적으로 빼앗는 등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을 갈취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 등은 매일 일정한 돈을 주지 않으면 서슴없이 주먹을 휘둘렀고, 심지어 A군 등에게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훔쳐 오라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선생님한테 말해도 가볍게 처벌하면 또다시(김군 등)이 우릴 괴롭힐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군 등이 “(누군가에게) 돈을 상납하기 위해 금품을 빼앗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러’ 피살 교육대생 시신 광주 도착

오늘 오전 영결식

러시아에서 어학연수 중 현지 청년 3명에게 집단 구타당해 지난 18일 사망한 광주교육대 3학년 강모(22)씨의 시신이 24일 오후 5시40분경 광주 무등장제식장에 도착했다.

강씨의 운구가 도착하자 제식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족, 친구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울음을 터트렸다.

강씨의 할머니는 강씨의 아버지를 붙들고 “왜 혼자왔느냐”며 오열해 보

는 이들의 눈시울을 젖게 만들었다. 강씨의 시신이 안치되자 강씨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나란히 영정 앞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고, 이를 지켜보던 가족과 친구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장례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굳은 표정이었던 강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시신이 안치되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흘렸다. 학교 관계자, 교수, 동료 학생들도 빈소를 찾아와 애도했다.

강씨의 아버지는 “한국의 젊은 대학생이 숨졌는데 아직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찰의 수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외교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씨의 영결식은 25일 오전 9시 광주교대 학교장으로 치러진다.

이에 앞서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은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 유족과 고인의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광주교대를 사랑했던 고인의 뜻이 계승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원침 (8046) 김중두



백도해상 선박 전복 1명 실종

24일 새벽 3시 50분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동쪽 20km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중형기선저인양 어선 제707호(59t)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중국인 선원 평모씨(38)가 실종됐으며 나머지 선원 12명은 인근에 있던 선단(船團)선에 의해 구조됐다. 이 배는 지난 22일 오후 경남 삼천포항을 출항, 조업한 뒤 다음날 3일 귀항 예정이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10대를 ‘차비 없다’ 고급 자전거 훔쳐

○차비가 없다는 핑계로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10대 3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묶여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 김모(18)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5일 밤 11시에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박모(51)씨의 MTB(산악자전거·시가 100만원 상당)를 타고 달아난 혐의.

○김군 등은 경찰에서 “오락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집에 갈 차비가 없어 타고 가려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허술한 보호관찰 범죄 키운다

성범죄 조씨, 위치 신고 직후 버젓이 범행

광주 20명이 2,500명 관찰...인력확충 시급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엮기’ 성범죄를 일삼아온 조모(21)씨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확인돼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씨는 광주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신고를 한 날 ‘보란듯이’ 13세 소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광주보호관찰소와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신고를 한 직후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서 B(13)양을 성폭행했다. 조씨가 지난달 2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조씨는 ‘보호관찰을 신고받았지 10일 이내에 관찰 보호관찰소에 주가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고절차를 마친 뒤 태연하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조씨는 B양을 시작으로 18일동안 무려 8명의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통상적으로 출소 후 1개월이 지나면 보호관찰관의 첫 지도·방문이 이뤄진다. “보호관찰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고모인 3월 2일 시작반

4월 10일 특강특강

모의고사 9월 문제풀이

1등은 이유가 있다!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합격유일 대학생 9급 야간반 개설

한빛고시학원 최근 3년간 합격자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소방직 100% 합격률

마감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하우빌딩 234-0234